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만민중앙소식

이 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news.manmin.or.kr
등록번호 : 다-1840(1989. 7. 12.)
편집처 및 발행소 :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 이재록
인쇄인 : 김신경
편집인 : 빈금선
서울 구로구 구로동 851번지 ☎02-818-7000
e-mail : manminnews@hotmail.com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제370호(구390호) 2008. 7. 27.(격주간)

2008 여름성경학교

하나님 사랑으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행복한 시간”



두 손 모은 아이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하나님 은혜의 그늘 아래, 아이들은 더운 여름도 잊은 채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고 있다.

GCN 방송을 통해 생중계 된 아동주일학교(교장: 장성식 목사) '여름성경학교'가 7월 20-23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공간'(창 1:1)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말씀과 찬양, 성령충만기도회, 학년별 특별 활동, 레크리에이션, 하늘보기 등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천국 소망이 더해졌다.

한편, 은혜와 감동을 안겨준 '제1회 만민아동예술제'는 예선을 거친 15개 팀이 참가해 찬양과 율동, 연주 등으로 재능을 마음껏 뽐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대상은 구연동화를 선보인 정주선(유치부, 6세) 아동이, 금상은 6학년 여학생들로 구성된 새벽이슬 팀이 차지했다.

또한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인형극 '거듭난 피노키오'와 '만민의 아이들'도 큰 박수를 받았다.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매일 매일 열렸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다윗 왕처럼 일어나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는 친구들의 열정 속에 시작된 강사님들의 말씀은 '꼭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특히, 학년별 행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기에서 고난받는 주님을 보며 많이 회개하고 울었어요. 하늘에 만들어진 여러 형상의 구름들과 천사들을 볼 때에는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저희들을 고향 안고 기도해 주는 선생님들의 사랑에 감동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통회자복하며 성령충만해져 마음이 시원하고 좋았어요. 유아부부터 6학년까지 많은 팀이 준비한 예술제는 참 멋진 무대였어요.

여름성경학교가 매일 열렸으면 좋겠어요,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변화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홍찬예(5학년)



“너희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참 행복했단다”



유난히 하늘에 잠자리가 많고 시원한 날씨 속에 평안하게 진행된 여름성경학교, 우리 참 행복했지? 이른 아침부터 모인 너희들의 눈망울은 기대와 사모함으로 빛났고 그런 너희들을 보며 선생님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마음이 설렘이었다.

당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강사님 말씀에 똑바로 앉아 진지하게 듣고, 일어나 뛰며 충만하게 찬양하고, 두 손 모아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너희들을 보며 은혜 많이 받았단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해서 준비한 선생님들의 인형극에 환호할 땐 행복했고, 너희들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연습하며 마음껏 재능을 펼쳤던 예술제는 마치 천국 공연을 보는 듯 했어. 너희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했던 여름성경학교, 참 행복했단다.

박영미(주교사)



양다리 걸치기

속담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모한 행동이나 욕심을 부리면 갖고 있던 것도 잃게 된다는 의미로서 신앙 안에서 마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져보며 하나님과 세상의 흐름 속에 양다리를 걸치고 상황과 편의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축복받기 어렵습니다.

“온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학개 2:8)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므로 우리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건강, 자녀, 재물, 명예 등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시편 145:19)

글 · 이재록 목사
동아일보 연재 중인 '실로암' 칼럼에서

2008 하계수련회 일정

7.28. ~ 30.
중국대교구, 청각장애우선교회, 해외교구

7.28. ~ 31.
학생주일학교

8.4. ~ 6.
전국 남·녀장년

8.4. ~ 7. 6개 연합회
(대학, 가나안, 청년, 바울, 마리아, 빛과 소금)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대 예배	1부 · 오전 10:0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오후 8:00
	2부 · 오전 11:30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 오전 11:30
새벽예배	새벽 5:00		저녁 · 오후 1:30

교회 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오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국 ☎ 02-818-7391~5)

만민중앙소식을 받아 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 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 - 851-3845, 818-7309
- 온라인 번호 (예금주: 위성영)
- 국민은행 362-21-0201-106
- 우리은행 072-255732-02-201
- 농 협 100072-52-061722
- 우 체 국 012419-02-047269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늘들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헤미야 9:6)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세계는 사람들이 살아 가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육의 세계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은 영의 세계입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영의 세계인데도 많은 사람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의 공간, 곧 지구를 포함한 우주가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조차도 광활한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다는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한계 속에서는 하나님 세계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를 다 밝혀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외에도 여러 개의 하늘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1. 여러 개의 하늘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면 적어도 두 개의 하늘까지는 능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육의 세계의 하늘과 천국, 곧 영의 세계의 하늘이지요. 성경 곳곳에는 그 외에도 또 다른 하늘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68:33에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발하시니 웅장한 소리라” 했고, 열왕기상 8:27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10을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했으며, 고린도후서 12:2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사 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했지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고백은 첫째, 둘째, 셋째는 물론, 그 이상의 하늘도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 줍니다. 그러가 하면 스테반 집사는 사도행전 7:56을 통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고백했습니다. 첫째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안이 열리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자들도 하늘이 여럿임을 인정하고 있지요. 한 예로, 미국의 맥스 테그마크라는 저명한 물리학 교수가 소개한 ‘평행 우주론’이라는 이론만 보아도 여러 하늘이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우주론적 관측 결과 우리의 우주는 전체 우주의 일부분으로 세상에는 수많은 우주가 존재하며 이 우주들의 물리적 성격이 전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외에도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우주에 물리적 성격, 즉 시간과 공간적 특징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으로 영적 세계를 다 밝혀낼 수는 없지만,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도 우리가 사는 우주가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의 하늘도 있지만 영의 세계에 속한 하늘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들이란 4차원에 속하는 영의 공간을 3차원 세계에 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것도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육의 공간과 영의 공간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공간은 하나였습니다. 때가 이르자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지요. 사람을 창조해 자유 의지 가운데 하나님 닮은 자녀를 찾아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첫 준비 작업은 하나님이 홀로 계신 공간을 육의 공간과 영의 공간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육의 공간과 영의 공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육의 공간은 사람이나 짐승, 새나 물고기처럼 세월이 지나면 노화되고 썩어 없어지는 육의 존재가 있는 공간으로 육에 속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질됩니다. 반면에 영의 공간은 영의 존재가 있는 공간으로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으며 공간 속에 또 다른 공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와 우주를 가리키는 육의 공간인 첫째 하늘과 영의 공간인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이 만들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7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했는데, 여기서 ‘공중’이라는 곳이 영의 세계에 속한 둘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에는 창세기 2, 3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아담을 이끌어 들인 에덴동산이 있습니다. 이 곳은 생명 아담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영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에덴동산에 머무를 수 없었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에덴동산 동쪽에는 인간 경작을 위해 하나님이 악한 영들에게 허락한 공간이 있습니다(창 3:24). 바로 에베소서 2:2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여 원수 마귀 사단이 권세를 잡으며 머물고 있는 공간도 ‘공중’이라 합니다. 따라서 둘째 하늘에는 어둠의 영역과 빛의 영역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장차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원토록 있을 천국의 공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2:2-4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사 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

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백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천국의 낙원을 보고 온 것을 말하며,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은 단지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개로 나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하늘은 하나님이 태초에 홀로 계셨던 공간입니다. 소리를 머금은 빛으로 계시면서 모든 우주 공간을 마음에 품고 다스리던 공간이지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의 공간에는 각각 다른 시간의 흐름이 있는 반면, 이곳에서는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의미하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마음에 품기만 해도 그 즉시 이루어집니다.

3. 공간이동의 역사

이러한 육의 공간과 영의 공간은 겹쳐 있습니다. 사도행전 8:39-40에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欣然)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감으로 빌립은 순간 광야에서 멀리 떨어진 아소도로 이동했습니다. 육의 공간과 겹친 영의 공간을 통해 이동했기 때문에 순간 사라졌다가 얼마 뒤 공간이 겹친 또 다른 곳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공간을 이용한 하나님 권능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영으로 들어가서 육의 몸을 완전히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차원에 있을 때라야 가능합니다.

열왕기상 18:45-46을 보면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와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했습니다. 여호와와 능력이 임해 그 순간 엘리야의 몸을 하나님 권능으로 감싸니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19에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순간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며 문이 닫힌 곳에도 들어올 수 있던 것은 영의 공간을 이용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또한 성경 출애굽기에서도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출현한 수많은 메뚜기 떼,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등 영의 공간을 이용해 이동한 하나님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라’(요 4:48)는 말씀처럼 이 시대에는 하나님 권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늘의 공간을 열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권능을 늘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in truth

잠자리로 행복한 요즈음...



전 세계 5,000여 종이 서식하고 한국에 약 100여 종이 있는 잠자리는 주로 모기, 파리 등 해충을 먹는다. 뛰어난 사냥꾼으로 먹성도 좋아 하루에 200마리 정도의 모기를 먹어야 배부르다고 한다.

요즈음 만민의 성도들은 잠자리로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다. 한국, 일본, 미국,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사랑스런 잠자리 출현 소식을 듣기 때문이다. 교회나 일터, 마당이나 집 안 등 어디서나 성도들의 주변을 돌며 손이나 이마, 코 등 몸 곳곳에 앉아 즐거움을 주고 있다. 여름이면 모기로 고생하던 것도 옛일이다.

잠자리가 무리지어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진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걸까? 왜 그리 날쌔지 잠자리를 잡아보겠다고 하루 종일 동네를 누비다가 별 소득 없이 해질녘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만민의 성도들에게 잠자리는 매우 친밀하고 반가운 존재가 되었다. 지난 7월 9일에는 두 시간 정도 해 주변 상공에서 잠자리가 쏟아져 나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 뒤 교회 상공을 비롯, 이곳저곳에서 수백, 수천 마리의 잠자리 떼가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성경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대목이 나온다(출 14장).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갈랐는데, 이는 양쪽에서 바람이 불어 바닷물을 좌우로 갈라 벽이 된 것으로 매우 거센 바람일 때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노인을 포함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생축들이 바다 한 가운데를 지나 모두 건널 때까지 엄청나게 거센 바람이 계속해서 불었다는 것이다.

허리케인이 지나가면 집이나 건물들도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물을 가르 거센 바람 속을 유유히 걸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공간을 열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공간 안에 두셨다면 이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를테면 갈라진 바다 사이에 투명한 '유리 터널'이 놓여 그 안으로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 가운데 순간 영의 공간으로 넣고 거센 바람 속을 유유히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그러나 뒤쫓던 애굽 군대는 모세를 믿고 따른 것이 아니기에 영의 공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즉 육의 공간에 머물렀기에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고 홍해에 수장되고 만 것이다.

여호수아 3:14-17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은 멀리 떨어진 곳에 쌓이고 아래쪽 물은 사해로 흘러가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치이다.

그 외에 동방박사를 아기 예수님께 인도한 별(마 2:9), 애굽에 내린 메뚜기 재앙(출 10장),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출 16:13-14), 왕이 탄 마차보다 빨리 달린 엘리야(왕상 18:46),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홀연히 사라진 빌립 집사(행 8:39) 등 하나님께서는 영의 공간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권능을 나타내셨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교통사고로 폐차 되어도 뼈 하나 다치지 않고 지킴 받는 성도들, 나타났다가 휘말려 들어가며 사라지는 구름, 별의 이동과 잠자리 등을 통해 살아 계심을 증거하고 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일은 비단 성경속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MISSION

아프리카 케냐 사역 간증

손수건 기도를 통한 잉태와 순산

자궁의 나팔관에 문제가 있어 아이를 갖지 못하던 성도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로 잉태해 얼마 전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28세의 니콜레 성도는 2001년 첫 아이를 낳고 나팔관에 이상이 생겨 하나를 제거한 뒤 약 7년간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안 무힌도 장로(남편 캄발레 성도의 사업 파트너)가 성결 복음과 당회장님 권능에 대해 전했다. 또한 사도 바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갔던 것처럼 당회장님께 기도 받은 손수건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를 전하자 부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2007년 7월, 제가 '콩고민주공화국 고마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 강사로 갔을 때, 니콜레 성도는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권능의 손수건을 얹고 잉태의 축복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8월에 니콜레 성도는 병원을 찾았고 진단 결과, 임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산 때가 된 올 6월, 검진을 받았는데 아이의 목에 태가 감겨 있어 위험하니 나이로비에 소재한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이로비 큰 병원에서도 똑같은 진단 결과가 나왔지요.

이때 니콜레 성도는 하나님께 잉태의 축복을 받았기에 나이로비 만민성결교회로 와서 제게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자 했습니다. 기도받으면 수술받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며 믿음을 내보였지요.



저는 손수건 기도를 해 주었고, 니콜레 성도는 수술받지 않고도 6월 8일, 예쁜 딸을 낳아 3주가 지난 28일, 딸을 안고 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와서 나이로비 만민성결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요.

이러한 일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늘 체험하는 일이지만 그때마다 당회장님을 통해 펼쳐시는 하나님 권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글·정명호 목사(케냐 나이로비 만민성결교회)

일본 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뒤덮였다

우리 교회는 열두 차례의 해외 연합대성회와 각국의 손수건 집회, 그리고 GCN 방송과 문서선교를 통해 전 세계 7,800여 개의 지교회를 이루며 영혼 구원에 힘써왔다. 복음 전파가 땅 끝까지 이뤄지는 이 시점에서 일본 선교의 맥을 짚어본다. <편집자>

일본 선교현황

- 이다 만민교회(유승길 목사)
- 나고야 만민교회(도키쿠니 미야코 전도사)
- 벳부 만민교회(가토우 이사오 목사)
- 야마가타 만민교회(장강섭 목사)
- 아사히가와 만민교회(고마츠 미끼 전도사)
- 오사카 만민교회·마이즈루 만민교회(김건태 목사)
- 동경 타바타 만민교회(정경태 목사)
- 마츠모토 만민교회(이도우 마사야키 목사)
- 가와사키 만민교회(김상수 전도사)
- 오카야마 만민교회(도키쿠니 야스히로 목사)
- 야치요 만민교회(아오키 히사나오 목사)
- 호코타 만민교회(이이즈카 마사루 전도인)
- 동경 만민교회(최병란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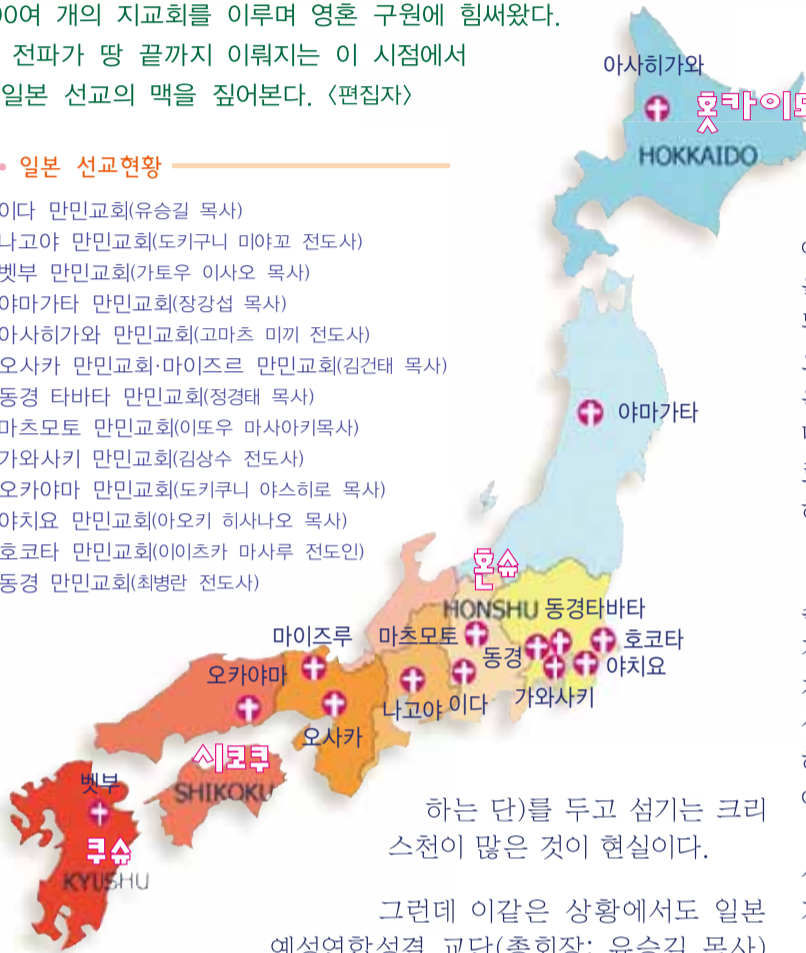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460년이 넘는 천주교와 146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일본은 순교의 피가 가득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범신론 사상으로 움진리고, 통일교 등 한 해 100개씩 생겨나는 갖가지 이단과 신흥종교로 인해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다.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다?

종교가 신앙이라기보다는 생활 관습에 가까운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다'고 하는데 800만이라는 것은 무한대를 의미한다. 해, 달, 짐승, 인형, 심지어는 강아지까지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 다신론 사상에 젖어 있어 특정 종교에 얽매이지 않으며, 천황도 부처도 하나님도 함께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신당 안에 교회를 세우라고 할 정도이다. 또한 현재 중심적이어서 내세의 복에 관심이 없다.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장 가도를 달리는 일본 지교회

이러한 일본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대부분 기독교를 미국의 종교나 서양문화의 한 흐름 정도로 이해한다. 그래서 나이 많은 이들은 종종 일본 민족 종교인 신도와 동양 종교인 불교만 고집하기도 한다. 이 때문인지 기독교 인구는 여전히 1%를 넘지 못한다. 또한 교회에 다니면서도 집안에 불단이나 가미다나(조상신 등을 모시는 일본 종교의 신도에서 사용



하는 단)를 두고 섬기는 크리스천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에서도 일본 예성연합성결 교단(총회장: 유승길 목사)은 이다 만민교회 등 14개 지교회와 협력 교회가 일본 열도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일본 선교지도 참조).

특히 1994년도에 개척해 일본 선교의 초석이 된 이다 만민교회는 2008년 7월 현재, 등록인원 120여 명의 큰 교회를 이루었다(일본에서 성도수 100명 이상이면 큰 교회에 속함). 뿐만 아니라 목회자 세미나, IT 선교 등 체계화된 복음 전파를 위해 동경선교센터를 설립했다.

성결 복음과 권능이 선교의 원동력

선교하면 대체로 구제 사역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선교 시각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과 다각화가 필요하다. 경제 선진국이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매우 두드러져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영적으로 혼탁해 해마다 4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자살을 택하기도 한다.

우상 숭배와 영적 방황, 바로 여기에 선교 포인트가 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과 살아 계신 하나님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일본 예성연합성결 교단이 부흥을 이루는 비결은 성결 복음과 손수건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권능의 역사에 있다.

2000년 9월, '일본 나고야 신유 대성회' 때 강사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13명의 농아 중 7명이 듣고 말하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 역사는 지교회 개척 배경만 보아도 여실히 드러난다.

결혼 후 5년 동안 아이가 없던 성도가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임태의 축복을 받은 뒤 전도 된 불임 부부들도 기도받고 임태하자 이들로 1998년 1월, 야마가타 만민교회가 개척됐다.

2005년 6월에는 생후 3개월 된 손녀의 심장에 4.5mm의 구멍이 나 있던 '심장 중격 결손증'을 이재록 목사의 시공 초월한 사진 기도로 치료된 히로우치 아끼요(여, 66세) 성도의 헌신적 노력으로 마이즈루 만민교회가 개척됐다. 또한, 참 복음을 찾아 갈급하던 이이즈카(남, 65세) 씨는 '만민중앙소식' 지를 통해 전도되어 대인공포증을 치료받은 후 2007년 10월, 호코타 만민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지교회 곳곳에서는 매달 또는 비정기적으로 손수건 집회를 갖는다.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성도들은 수많은 응답과 치료의 역사를 체험한다. 이는 일본 교회 대부분이 성령의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실정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 역사를 확실히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본 전역이 성결 복음으로 깨어나는 그날까지, 선교사들의 땀방울이 많은 영혼으로 열매 맺히길 기대한다.

사회봉사의 요람 '보라티아회'

기독교 자체를 잘 모르는 일본인들을 위해 이다 만민교회에서는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의 기회를 만들었다. 바로 10년 전에 결성한 '보라티아회'이다.

노인 복지와 학생 선도를 위한 인형극 활동, 워십 공연과 여러 자선 활동을 폭넓게 시행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런 선행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다 시로부터 감사의 표창을 받았고, 이에 감동받은 많은 영혼이 주님을 영접했다.

'보라티아회'는 현재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이다 시 사회복지협의회 요청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51)805-1363, 010-5335-542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2동 1323-12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1-387-0263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6-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8-618-6194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83-5004,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9-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8947-5989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1-745-2119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1-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742-4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동2동 47-5 ☎054)281-9367, 010-8433-2073
- 구미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태동 742-4 ☎054)464-4512, 016-539-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1-60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1-608-3037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원신구 효자2가 929-1 ☎063)223-9991, 018-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1동 250-3 ☎063)853-0675, 011-671-7191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도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9-234-3719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필호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31)781-9830, 017-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48-5 ☎02)489-3766, 010-6712-2073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158-5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동 46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27 ☎031)840-2906, 019-251-3149